

## 한국, 지난해 국제특허출원 세계 8위

한국이 국제특허출원 건수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총 2천318건의 국제특허를 출원, 2000년의 11위(1천514건)에서 3단계가 뛰어오른 8위에 랭크됐다.

1위는 미국(4만3천건)이 차지했으며 독일(1만3천616건), 일본(1만1천846건), 영국(6천233건), 프랑스(4천619건), 스웨덴(3천502건), 네덜란드(3천18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2천30건)와 스위스(2천11건)가 각각 9.10위에 올랐다.

각국의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만건을 돌파했다고 제네바대표부의 안재현 특허관은 전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188.4%와 102.6%가 각각 증가한 1천670건과 361건에 달하는 등 2년 연속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배증, 115개 회원국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은 앞으로 1년안에 세계 10위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안 특허관은 전망했다.

PCT는 각국의 기업 및 발명가들의 해외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WIPO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한 출원 대상국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국제특허협력에 관한 조약으로 지난 70년에 체결됐다.

지난 78년 발효된 이후 총 출원건수는 68만4천260건이다.

출처 연합뉴스

##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세 크게 둔화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세가 지난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www.kipo.go.kr)은 지난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28만7759건으로 지난 2000년 28만3087건에 비해 1.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의 경우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6.5%, 실용신안은 21.2% 증가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허청의 최근 5년간 권리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99년 24.7%, 2000년 22.5%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상표출원이 감소하고, 실용신안, 의장 등은 10% 이내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결과물인 특허는 지난해 10만3011건으로 2000년 10만2010건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신기술 개발을 토대로 한 벤처산업 활성화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춤한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온라인게임 특허 출원 증가세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방법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특허 출원은 99년까지 36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총 405건으로 전년대비 1000% 이상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고, 2001년 상반기에도 12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까지 게임과 관련한 특허 출원은 주로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한 요소기술 특허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는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방식에 관한 것이 전체 신청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온라인게임과 전자상거래를 접목한 서비스나, 광고와 마일리지 서비스를 접목한 게임 방식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다.

특허 출원 게임으로는 퍼즐·퀴즈·타이핑·카지노게임 장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게임과 관련해 2001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200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특허청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온라인게임 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 러시가 일어났으나, 2001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개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급증했던 지난 2000년부터 이와 접목한 온라인게임 관련 특허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주춤해진 2001년에는 출원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게임 기술 특허와 관련한 출원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비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5년간 금지된다.

또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이들 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또 범정부적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산하에 온라인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확정됐던 5백억원 규모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을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경제

## 콘텐츠 저작권 5년간 법적보호

오는 7월 15일경부터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준

## 계절명칭 상표 ‘봄’ 이 가장 많아

◇ “봄”이 계절을 이용한 상표 출원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해방이후 계절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봄이 상표로 사용하기를 가장 원하는 계절이고 겨울, 가을, 여름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봄이 가진 생동과 희망의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겨울의 경우 차갑고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한 빙과류 등 식품 등이 많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봄 관련 상표로는 늘봄,봄맞이, 봄치녀, 고향의 봄 등이 있다. 겨울 관련 상표 중엔 겨울바다, 겨울향기, 한겨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계절 상표는 주로 식품, 농산물, 화장품 등에 쓰이고 있다.

상표에 계절을 붙이는 이유는 식품, 농산물의 품질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절기를 이용해 상표로 출원한 경우는 24절기중 청명, 하지, 상강, 대설, 동지 등 5개 절기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추석, 단오 등 널리 알려진 세시풍속과는 달리 절기에 큰 민속적인 행사가거의 없는 까닭으로 판단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기후와 관련된 용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번개 비 구름 안개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경제

## IBM, 지난해 3천411건 특허 등록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제조 및 서비스 회사인 미국의 IBM이 지난해 무려 3천411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특허 전문조사회사인 IFI 조사를 인용, 보도했다.

IBM의 지난해 특허등록건수는 전년의 2천886건에 비해 거의 20%나 늘어난 것으로 단일 기업의 연간 특허등록건수가 3천건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모두 15만명에 달하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IBM은 그간 연구개발(R&D) 분야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최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고 있으며 등

록된 특허를 다른 기업들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연간 17억달러의 로열티소득을 올리고 있다.

IBM은 이같은 사업 목적 때문에 단순히 IBM이 필요로 하는 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등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BM이 등록한 특허기술 분야는 시스템 디자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데이터저장, 재료과학 등 다양하다. IBM은 9년 연속 연간 최다특허등록을 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한편 미국내 특허등록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미국내 특허등록건수는 6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이전시 수수료 대폭 인하

특허청은 기업체의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와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대폭 인하여 2002. 1.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서면으로 특허 또는 의장출원을 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 비용)도 인하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한다.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의 경우, 특허권(기존 매건 5만3천원), 실용신안권(기존 매건 4만원), 의장권(기존 매건 4만원), 상표권(기존 매건 11만3천원),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기존 매건 4만 3천원)의 이전등록시 공히 매건 1만4천원으로, 출원인 변경신청료(기존 매건 1만3천원)는 매건 6천5백원으로 각각 상속시

이전등록료와 출원인변경신청료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 특허 또는 의장출원시 서면으로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비용)는 각각 매건 5천원(기존 8천원), 매건 3천원(기존 5천원)으로 실용신안 또는 상표의 서면 보정시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인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회사는 특허권 등 이전등록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재산권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면출원이 많은 개인의 경우도 보정료 인하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 참고자료

1.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신청료 인하
  - 이전등록료
    - 특허권 : 매건 5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실용신안권 : 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의장권 : 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상표권 : 매건 11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 매건 4만 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출원인 변경신청료
      - 매건 1만3천원 ⇒ 매건 6천5백원
2. 서면으로 특허 및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 비용) 인하
  - 특허출원 : 매건 8천원 ⇒ 매건 5천원

- 의장등록출원 : 매건 4천원 ⇒ 매건 3천원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최소합격인원제 및 1차시험의 상대평가제 도입 -

- 특허청은 2002. 1. 17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제도의 절대평가제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의한 변리사의 배출이 확대되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2001. 12. 7)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1차시험의 합격자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로 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 ■ 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 현재는 변리사 1차 및 2차시험이 모두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제)를 합격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으로 공고한 인원의 일정배수(통상 5배수)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할 수 있도록 하고
- 2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동 인원

의 범위안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소합격인원제와 1차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사유

- 2차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출제의 난이도나 채점의 점수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특별히 적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합격자 수를 가급적 많이 배출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로 제도를 개선한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일정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1차시험에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상호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2차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가 1차시험에 합격될 수 있어 그만큼 2차시험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시험의 합격자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 PCT출원의 지정료가 없어진다

- 지정개념 폐지로 PCT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이 지정됨 -

○ 금년 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 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 동 회의에서는 PCT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의의 의결로 시행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현재의 PCT출원 비용 중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지정료 약 65만원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 금년 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 동 회의에서는 지정개념을 폐지하여 모든 PCT출원이 출원과 동시에 전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에서 동 제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 후 시행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현재 PCT국제출원시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 하는 6개국 기본 지정료에 해당하는 약 65만원이 지정개념 폐지로 면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정됨으로써 출원인은 PCT회원국 중 어느 나라로도 국내단계로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 금번 회의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PCT동맹총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 (USPTO)이 제안한 PCT개혁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개최되었고 논의된 주

요 사안으로는

- 지정 개념 및 지정료 폐지
- 현행 국제조사보서 작성시에 추가로 국제 조사의견서를 작성하는 확장된 국제조사보 고서 개념의 도입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 PCT 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사항 등이다.

○ 상기 의제 중 회원국의 합의에 도달된 사항 으로는 지정개념 및 지정료 폐지, 그리고 PCT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 등이다.

- 그러나, 회원국간 가열된 찬반 논의로 합 의점을 찾지 못한 확장된 국제조사보고서 의 도입,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등은 내년 4월에 개최될 제2차 PCT 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 이다.

○ 금번 회의에 상정된 의제 중 상당부분은 미 국이 미국특허상표청내의 PCT 심사 물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이러한 미국측 제안이 PCT 제도를 오히려 복잡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저하시키 는 등 PCT 제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축소를 이끌어 냈다.

○ 앞으로 WIPO측은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과 정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내년 4월 중에 개최될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 반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 제1차 및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 에서 합의한 사항을 내년 9월 PCT 동맹총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